

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교회와 정치 집담회



변상욱 전 CBS대기자

새도우캐비닛 대표 김희원



- 일시 2024년 3월 22일(금) 저녁 7시
-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 발제 변상욱_한국교회와 교인의 정치참여
김희원_4.10 총선 현안과 정치개혁
- 대화 참가자
- 사회 김현아 (기윤실 사무처장)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회와 정치 집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현안을 고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기독교신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순서 및 목차

교회와 정치 집담회 취지 및 순서자 소개 (19:00~19:05)

사회: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발제1 :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19:05~19:35)

변상욱 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전 CBS 대기자

발제2 : 4·10 총선 현안과 정치개혁 (19:35~20:05)

김희원 새도우캐비닛 대표

참가자 발언 및 전체 토론 (20:05~20:50)

다같이 현장 및 유튜브 참가자

마무리 발언 (20:50~20:55)

발제자 변상욱, 김희원

광고 및 마무리 (20:55~21:00)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제1]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변상욱(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전 CBS 대기자)

※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한국 교회

1.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상황

- 지난 수십 년 간 세계화는 대한민국 상류층에겐 혜택을, 보통사람들에겐 빈곤감과 무력감을 안겨 주며 불평등을 확대
- 저소득층, 중산층 모두 피로도와 분노, 실망 커져
-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이어짐
- 자기 존중, 타인 배려, 신뢰 상실되어가는 상황
- 시장경제가 최소한의 공정과 공평을 유지할 거라는 희망은 사라지고 있어
- 노력하면 사회적 상승 기회 있다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믿음도 허상으로 내몰리는 상황
-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 약화
- 정부와 시장의 거버넌스 소용과 효용 줄어들고, 사회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고착화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
- 한국 사회 단절되고 공동체 가치 무시되는 현상 심화되며, 각자도생이 공감을 넓히고 '공정' 대신 할 시대정신처럼 번져
- 정치, 경제, 도덕, 문화, 민생,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나 정치적 양극화로 공론장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2. 한국 교회의 문화적, 정치적 지체

-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드는 불안으로 인해 서민층/중산층 등 이전의 계층분류는 적용하기 어려워져, 즉 부유 중산층 vs 중류중산층 vs 서민중산층, 빈곤층 vs 극빈층 분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듯 보임
- 종류, 서민 중산층에서 다수는 스스로를 중산층에서 떠밀려난 빈곤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해져. 따라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70년대~90년대 중산층은 과거처럼 균질하지도 않고 불안 가득한 불만계층으로 바뀌고 있음
- 상층부 중산층 / 일반 중산층 / 사실상 빈곤층에 이르는 중산층에 따라 정치적 색깔, 이슈, 의제설정이 다양함에도 한국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수준은 조약해 보임
- 이런 인식의 미흡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한 이해나 지적 수준에도 맞추지 못한 채 교회가 쉽사리 안이하게 정치적 행태를 가져가는 것이 계속해 교회 분열과 쇠락의 이유로 작용
-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되고 각종 미디어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젊은 세대의 문화다양성과 외부로부터의 지식이 대거 유입, 집단지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정치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음에도 교회는 정치적 동원과 선전, 갈등에 휘둘리고 있는 양상

3. 한국 교회의 정치적 적응과 대응

3.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동과 한국 교회

1)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열풍

- 한국 교회는 지구촌선교 강조하고 비전센터 세우며 자긍심과 기대감 키워 결속과 지지 동력 끌어내
- 국가적으로 환율/금리의 외환위기가 닥쳐 온 것처럼 한국 교회도 속도를 낸 세계화 이후 교회의 역량과 지위의 향상으로 이어지다 소강과 침체 상태

2)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개혁 이슈로 대형교회의 비리와 부정직함이 폭로되기 시작하고, 보수 기독교의 주요 이념적 지지기반이던 북한의 위협이 남북대화의 본격화로 인해 약화되자 보수 기독교의 구호는 북한 교회 세우기와 탈북자 돕기 등으로 전환. 기독교 진보진영은 남북 교류, 민족 통일, 남북교회 간 대화 등 남겼으나 저변확대 및 지속가능한 토대 구축에는 실패

3) 보수 기독교의 위기의식은 노무현 정권 말기 보수정권 탈환에 적극성 북돋아 교회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됨

- 뉴라이트, 반이슬람, 반동성애 등의 의제들을 꺼내기 시작
- 노무현 정부 말기엔 무상급식 논쟁 등 냉전이데올로기를 소환하기 시작

4) 이명박 정부 때는 현실정치와 정당 정치 속으로 개신교가 깊숙이 관여해 ... 인적 교류도 활발, 뉴라이트 이념 전파에 한국 보수교회가 호응해 주력으로 활약 이후 보수 정부로는 개신교의 소구에 미치지 못하자 개신교의 직접적 정당설립과 정계진출이 시도되고 개신교 보수극우 세력이 개신교의 주류로 등장하는 상황 빚어져

5) 문재인 정부 출범과 기독교 진영의 대응

- 대형 교회, 다수 교단의 보수화 - 평등법.동성애 반대투쟁
- 극우 기독교의 교권 진입 (한기총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 신사도주의 등 이질적 운동과 교권정치 결합
- 영적 전쟁이라는 구호에 우파 정치를 연결해 신도 동원
- 코로나 19의 팬데믹과 방역/비대면예배로 정부와 한국 교회가 충돌하면서 극우/보수 정파와 한국 교회의 결속이 고착화되기 시작

6) 20대 대선과 진보보수 대립, 그리고 한국 교회

- 교회는 현실 정치에서 의제를 가져오고 정치는 종교와 교착하며 교조주의적으로 변질
- 새 정부와 국민의힘 정권은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 뉴라이트를 계승하고, 교회는 신자유주의, 뉴라이트 이념 중, 초기 모델에 집착하는 정치의식 수준에서 로운 변모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7) 세속정치는 포퓰리즘을 통해 선거에서 제 몫을 확보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교회는 시대변화에 지체되며 위기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어

8) 교회 내 정치적 갈등의 증폭, 확증편향에 교인 비판과 이탈 번져

- 청년층, 식자층 이탈이 선도적으로 진행됨

- * 교회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그룹, 반대로 유입되는 그룹을 비교연구할 필요 있으나 외견상 일반 보수우익 성향의 그룹에서 새로운 교인으로 영입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그룹이 이탈하는 것보다 적어보임

9) 확대, 심화되는 탈종교화

- “탈종교”, “새로운 종교성”, “탈제도적 종교성”

- * 교회 출석하지 않고 교회의 요청이나 교회 참여 없이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임하는데 거리낌 없어지고 있어
- * 개신교 교회 잔류 역시 충성도의 증명 아님, 교적의 몇 %가 우리 성도일까
... 반발의 언어는 더 거세지고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해 감.
- * 부흥회, 피정, 템플스테이를 참여하고 타로집에 들르는 새로운 노마드 신도들 등장
... 메타 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지원
- * 새로운 크리스천들을 부르는 이름
익명의 그리스도인 -> 영적이나 종교적이지 않은 멀티신자

10) 정치적 양극화를 겪은 후 한국 사회는 결국 이념에서, 현실 삶의 개선과 실존적 과제로 건너 올 것이라 예상됨.

- 권력과 시민의 대립 -> 정치적 시민끼리의 대립 -> 세대, 젠더, 지역, 계층, 계급 갈등의 워밍업 단계
- * 정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교회 안에서 번지다 수습되고, 그 다음 이슈적 갈등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폭발할 수도
- * 정파적 갈등이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계급적 갈등의 해소가 정파적 분리에 의해 몹시 어려워지는 악순환도 예상됨
- * 교회가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없다면 기독교운동과 신학적 대안 노력이 이를 일부라도 품어 안게 될 텐데 그 범위와 주체의 여부, 성공 가능성은 지켜 봐야 할 문제

3.2. 2024년 한국 교회의 정치적 행보

3.2.1. 보수기독교 진영은 정치적 차원의 파열음 계속 내고 있음

- 극우적 성향을 보인 기독교당 한기총 .. 주류 진입 실패
- 개신교계 내에서 극우성향을 견지해 온 전광훈, 장경동 목사 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8대 총선에 나선 기독교사랑실천당이 주류.
- * 등장인물 - 전광훈, 장경동, 이동호, 구주와, 고영일, 김현욱, 박두식, 김충립, 김승규, 정훈, 전영춘, 최수환 (손절한 정치인 - 김문수 이윤석 이은재 김경재)
- * 한국기독교당 (2004년 17대 총선) -> 기독교민주복지당
(기독교민주복지당 + 사랑실천당) -> 기독교사랑실천당
- * 2007년 전광훈,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 본격화
2008년 조용기 김준곤 지원 받으며 기독교사랑실천당
2011년 전광훈 + 장경동 (기독교자유민주당)

- * **기독교사랑실천당**(2008년총선..2.59% 기독교민주복지당+기독교사랑실천당)
- * **기독교자유민주당**(2012년총선..1.0% 대한기독교당, 사랑실천당 등 -> 자유통일당)
vs **기독교민주당 (기독교당)**
- 기독교자유당(2016년 총선, 비례 2.63% -> 기독교자유통일당)
- 기독교당(2016년 총선, 비례 0.54%)
- 기독교사랑실천당 -> 기독교자유민주당 -> 기독교자유당 -> 기독교자유통일당 -> 국민혁명당
-> 자유통일당(2016) (개신교근본주의 반동성애 반공 반이슬람 친시온주의)
- 자유통일당 - '투쟁하는 자유우파 선동정당'
- * 전광훈,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운동을 함께 한 동지들의 당”
(‘광화문파’라는 별칭, 광화문연구소 두고 있음)
- * 장경동 당 대표의 딸 장하나 목사 최근 새로운 미래 입당
- * 장경동 목사 ‘새로운미래’와 ‘자유통일당’ 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 * 전광훈, 장경동 두 사람의 차이는 목회 기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오는 듯. 전광훈은 극우보수를 기반으로 기독교 보수진영 접근, 장경동은 목회 교회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치적 야심 충족
- 극우정당 운동을 전개하는 전광훈, 장경동 목사 부류와 개신교 보수진영 리더들의 연결은 단절되어가는 것으로 관측됨
- * <이영훈 목사 “전광훈지지 아냐..기도해 달라고해 갔더니 정당(자유통일당) 개소식”>
(2023.5)
- 그러나 반문재인, 반진보정권 운동을 거치며 광화문파와 개신교 보수진영의 구성원들 간에는 교집합 발생. 또 광화문파와 성향을 함께 하는 범광화문 연대세력 또는 지지 세력이 개신교계에 포진
- 그러나 이영훈 목사의 축사 내용은 “주사파와 공산주의 타파 사명” 강조해 느슨한 연대 가능성은 남아 있음
- 4.10 총선을 앞두고 전광훈 씨는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를 이재명 저격수로 내세움(총선 출마 취소 원희룡 후보 지지 선언) .. 불리해지는 건 원희룡 후보일 수 있는데 이를 개의치 않고 자유통일당 후보를 내세우는 건 극우정당 세력화와 주목표고 이번 총선을 극우세력 자유통일당의 정계진출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
- 최근 제주 강연에선 이번 총선은 한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느냐의 중차대한 국면이라 하고 야당 의원들이 북한과 연대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위험성이 있어 총선에서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함
- *이번 총선에서 개신교 내에서 번질 가장 과격한 가짜 뉴스 의제가 될 거로 보임.
- *개헌을 통한 친북세력의 연방제 통일 추진은 지방선거, 대선을 지나며 5~6년 간 계속되고 있는 가짜 뉴스
- 이번 자유통일당 후보들도 주사파 운동권 정치 청산 검수완박/국정원 수사권 약화/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내세우고 있음

- 개신교 보수진영 교회들은 관성대로 보수정파와 정치적 결을 함께 하며 여러 교회 설교 등에서 선거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박OO 목사 / 0000 교회

건국전쟁 영화 보셨어요? 대답이 왜 이렇노? 건국전쟁 영화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거짓되게 가르침, 세뇌당하고 있었는지... 제가 1부 예배 때에, 000 국회의원이 왔길래 국회의원들 모아라.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2부 예배 때에, *** 의원이 우리 청년인데 내가 경남도 의회 모아라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 집사님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이 어디갔노?

* 장OO 목사 / 000000 교회

청소년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약정보반을 해체.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4월 10일날 선거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돼. 잘 알고 해야 돼, 잘못된 사람들을 뽑으면 안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저 전라도 지역에다 공천하는 사람들 보면 이석기를 통해 했던 그 통진당. 진보당의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기소가 되어있는 사람도 공천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우리 아마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 이제 이렇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선거 때문에 앞으로 누구든지 오면 저는 인사를 시키니까 이 앞에 잠깐 서실까요? 이해원 후보자. 이예훈? 이예훈 후보입니다. (사진) 이지역 중구에 와서 이제 국민의 힘 이제 3명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오셨지요? 권사님이시지요? 네 차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OO 목사 / 000000 교회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폐지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와 시민단체가 끝까지 막아서 싸워서 조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도 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도록 서명 및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OO 목사 / 0000교회

그러니까 주사파 애들아. 개딸들아. 절대로 전광훈 핍박하지 마라. 핍박하면 나는 점점 더 올라가. 니들은 개똥이 되버려. 알았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이 장OO 목사님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지금 장OO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낙연 정당하고 합당을 하겠다. (좌중 안돼~) 이렇게 반응을 해서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장OO 목사가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 목사

예수님이 원하는 정치 낙태,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좌파 뭐 이런 것 하는 것, 예수님이 미워하시니까 나도 미워해야 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5년 동안 문재인이 겪어보지 않았어요? 교회 탄압하는 것을 보고도 문재인이 혹은 그와 유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지지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나 진짜 나약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장OO 목사 / OO교회 <최OO 집사 기도>

우상을 섬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며 교회 폐쇄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효하는 등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저들을 분별하게 하사 저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 권OO 목사 / OOO교회

새가족입니다. 한OO 성도님. 한OO 성도님은, 아 잠깐 일어나시면요.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반도체에 10년 근무를 하고 이번에 국민의 힘에 인재영입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동탄을 좀 섬기고 싶다. 크게 섬기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믿음생활 잘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소망을 하고 등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 장OO 목사 / OOOOOO교회

이제는 거짓 때문에 속아서 안되요. 더 이상 우리가 4월 10일 국회의원 뽑을 때,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뽑혀선 안된다 이거야(이재명 책 보여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디야 저기 그 계양구에 유동규씨가 나가잖아. 이재명이 잡겠다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저 거짓말쟁이, 저사기꾼 내가 잡겠다. 나는 국회의원 안된다. 그러나 나는 저의 거짓말, 저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선 절대 안된다. 그래서 싸우러 간다 그거야. 아 그랬더니 또 정유라가 나타났어. 최순실 딸. 정유라가 나타났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안민석이 잡으러 간다는 거야. 왜그러냐, 이놈이 우리 엄마가 3백조를 갖다가 썰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거지. 거짓말로다가 나라를 어지럽혀 놔 놔들 다 가서 자기들이 싸운다는 거야. 선거로 한표 주세요 하라고 하기만 하면 쫓아 다니면서 ‘거짓말’, ‘사기꾼’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라 그랬어.

* 최OO 목사 / OOOOOO교회

특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지역의 일꾼이 있으시죠? 국회의원... 우리 권OO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이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접했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고 이거보다 믿음의 식구가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 김OO 목사 / OOOO교회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아 걱정안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우리 국민의 힘 쪽에서 160석 이상 틀림없이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이재명 카는 그쪽당은 아마 많이 축소돼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에 탄탄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계시받은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 황OO 목사 / OOOO 교회, 박OO 장로기도

“이제 4월 10일이 되면은 총선이 다가옵니다. 주님, 점점 선거의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

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남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며, 동성애를 가르치며 버젓이 교과서에 그것을 실어서 가르치는 ..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한 명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3. 2024 총선에서의 전망과 과제

- 주목하는 것은 이번 4.10총선 과정에서 극우와 보수기득권으로 양분된 개신교 세력들이 어떤 의제와 프레임을 구축하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에 이르느냐 하는 것
- 그리고 그 파급이 개신교계 전체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것임
-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 ‘건국전쟁’을 통해 부각된 대한민국 건국 이슈는 보수 개신교 입장에서 부담없이 정파적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
 - * 이 지점은 광화문파와 보수교회들이 가장 만나기 용이한 접점이기도 함, 전광훈 씨의 경우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고쳐 부르는 등 이승만에 집착,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국가이니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 .. 극우의 한계를 벗어나 보수로 확대해가는 가장 효과적 통로이기도 함
- 기독교 보수진영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은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의 연대인 악법 대응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창립은 2022년 초, 출마 후보들에게 성오염 대책을 공개질의 답변 공개하기로
- 악법대응본부 +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 거룩한 방파제 (창립 10년 째, 오정호 김선규 목사 길원평 교수)
-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2024 부활절 퍼레이드 주목, 시기적으로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릴 시기, 이것을 퍼레이드로 해 광화문-시청 행진 .. 2023부터 전국 규모의 기독교 문화축제를 표방하고 있음. ... 이영훈 이철 목사 등
- 반 성오염 특별기도회 4월, 6월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 *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와 “투표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

3.4. 기타 공명선거를 흐리는 개신교 내 이슈

- 단톡방 통한 정체불명 가짜 뉴스의 공유
 - * 교회 폐지법안 발의 후 취소됐다는 가짜 뉴스가 다시 전파되는 지 지켜보고 있음.
- 000 목사의 아침 묵상 , 펴글 고지 없는 펴글 , 유명인 이름, 도용한 글 등이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패턴


3.5. 개신교 진보/개혁 진영의 상황

3.5.1. 그렇다면 성향 상 개신교 진보 진영의 동향은 어떠한가?

- 구심점 역할을 할 그룹이 보이지 않고 논의 자체도 없다

- 교계 내에서 총선 관련 진보 정파적 발언을 내놓기엔 평등법/동성애 옹호, 조국사태, 친이재명 프레임, 좌파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
- 주요 교단 지도층의 경우 기독교 성향 강하게 보이고, 교회 세습의 옹호 여부가 교권에 얽히면서 개혁적 발언의 입지는 더욱 좁혀짐
- 교회가 주목할 것은 총선에서의 특정 정파 승리 여부 아닌 정치적 힘이 대중으로부터 전문가에게로, 다수로부터 소수에게로, 정치 그룹으로부터 경제적 세력에게로 이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치적 권력과 의제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시대 과제는 금권마몬에 대한 우리의 노골적 우회적 집착과 굴종으로부터 영적, 정신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21세기 기독교적 영성(spirituality)
- 정치 양극화와 집단 의식을 살피면 우리편 편향에 있어서 선거와 투표는 개인의 종교, 젠더, 연령대, 거주지역 등 사회적 정체성을 넘어 모든 심리적 행동적 정체성을 표시하는 메가 정체성이 되었음
- 상승의 불리함이나 상실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 정치적 행동이 급격하게 보수화되는 경향 보여
- 정파들은 결집을 위해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쉽게 빼앗길 거라 주지시키며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어
- 수많은 정치적 미디어의 등장으로 정치 정보의 접근 늘어나지만 좋은 정확한 정치 정보가 늘지는 않았어
- 정파적 정체성, 갈등, 인플루언서에 더 매달리는 현상 보여
- 다만 진지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이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성 정치미디어 많아
- 유권자로서의 시민은 언제나 정치적 정파적 정체성을 조작당하고 프레임에 빠지는 위험에 놓여 있어
- 판단에 신중하고 시간을 넉넉히 갖고 진지하게 판단에 임하도록 정치와 미디어 리터러시 필요한데 교회가 제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4. 결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탱할 '시대정신'이란

- 식민시대와 일제잔재의 청산, 6.25 전쟁 및 분단 구조에 대한 인식,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집권과 시민혁명, 진보정권의 등장과 보수정권의 반동, 시민혁명의 재발발을 연속성 상에서 이해해야 정립돼
 - 한국의 개신교와 교회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반성하고 성실한 담론과 공론화를 통해 앞으로의 정치적 좌표와 방향을 교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a. 올바른 선교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
 - b. 분단과 냉전체제의 고착화에 대한 반성.
 - c. 사회의 민주적 발전보다 집단이기주의를 우선한 행위의 단절.
 - d. 조악한 정치이념의 고집과 전파 반성
 - e.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치 재정립과 실천 

[발제2] 4·10 총선 현안과 정치개혁

김희원(새도우캐비닛 대표)

1. 이미 선진국 수준인 문화, 이에 못 미치는 정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진국은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선진국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확히 정리된 것은 없지만 보통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91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제일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에 지정되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1997년 탈락한 뒤 2001년 다시 진입했습니다. 2021년 7월 2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첫 사례가 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과 삶의 질 면에서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2022년 11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8차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를 살펴보면 ‘선진국(G7) 대비 문화분야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응답 비율이 65.9%였습니다. 이는 2013년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근 10년 사이 34.4%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19세~29세 청년층의 경우 70.6%가 이미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문화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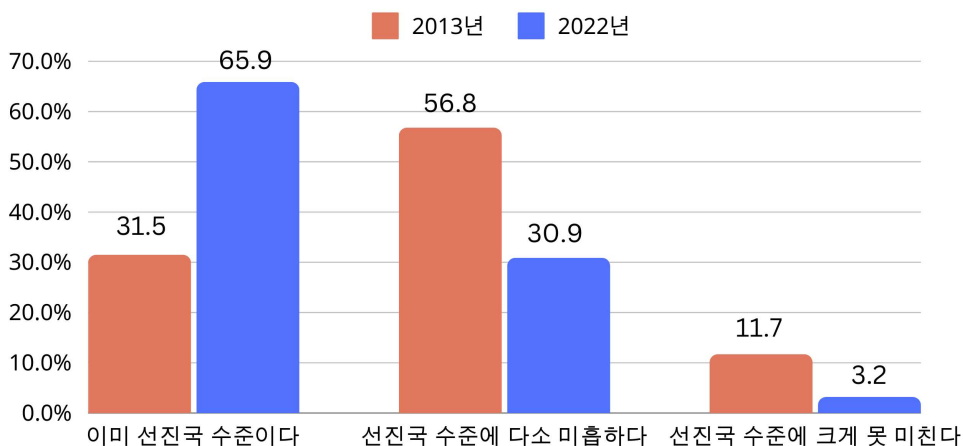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63P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떠한가요? 제8차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의 ‘선진국(G7) 대비 정치분야 수준’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4%,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라고 밝힌 사람이 37.7%로 전체의 94.1%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 정치분야

문)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G7) 대비 분야별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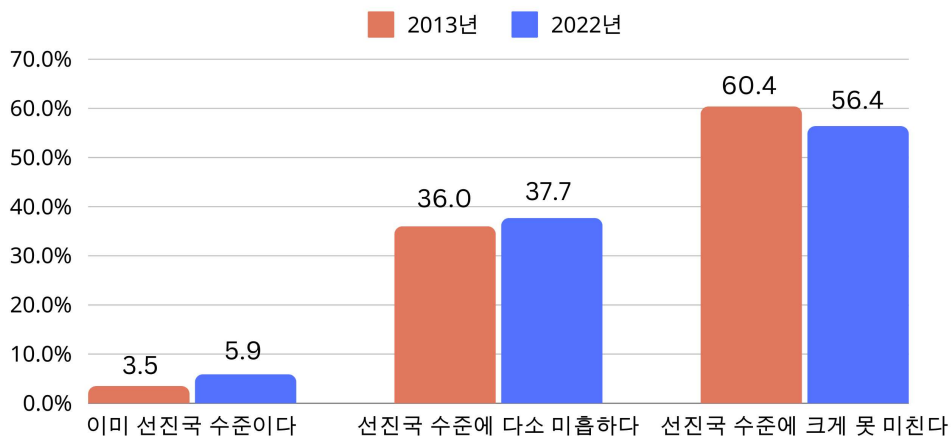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69P

1981년부터 5년을 주기로 발표되고 있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권위에 순종하려는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세계가치관조사의 주관자로 알려진 정치사회학자인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크리스찬 웰젤(Christian Welzel)에 따르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 단계에서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추종하며 위계적 질서와 전통을 옹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물질적 안정 상태에 달하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에도 반영되어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높아져 민주적 제도의 발전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2016년~2020년 실시된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의 가치에서 자기표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새로운 과제가 우리 사회에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The Inglehart-Welzel World Cultural Map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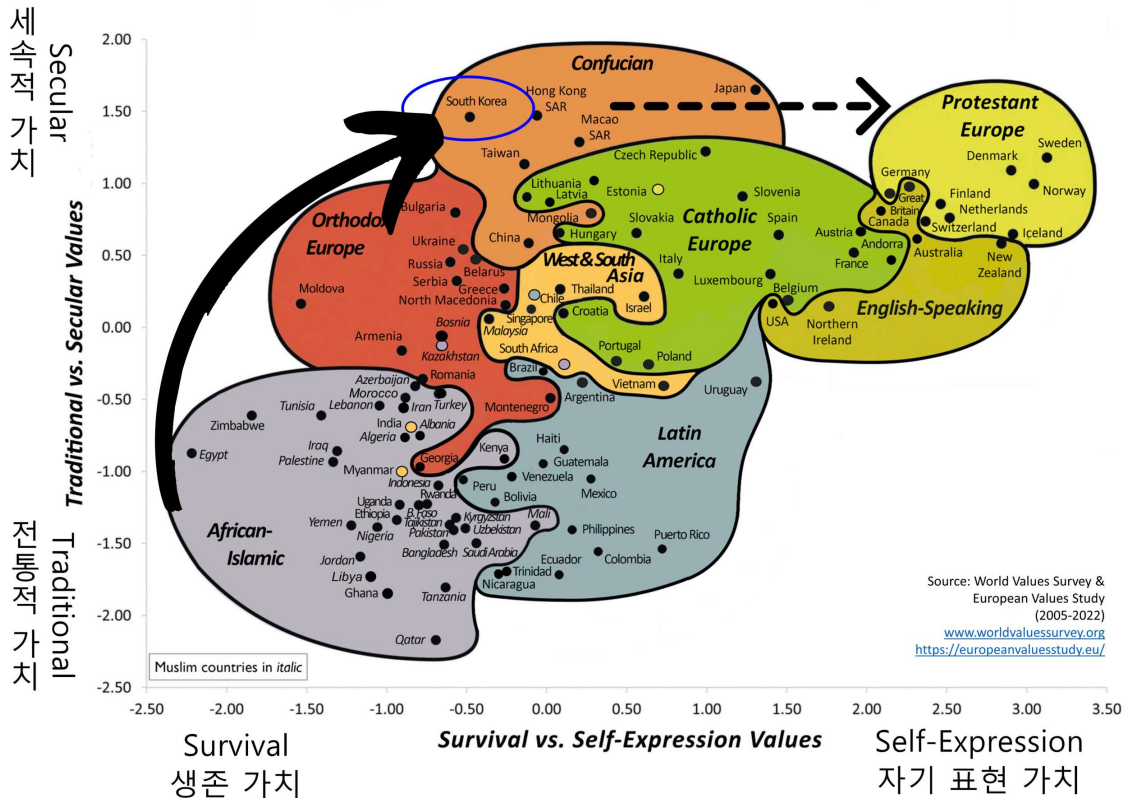


그림 5 Cultural map - 제7차 세계가치관조사 (2017-2022), worldvaluessurvey.org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생존과 전통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4·10 총선을 위한 각 당의 공천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목되는 건 오직 '정치인의 생존'과 생존을 위한 '정치 권위'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친윤불패 vs 더불어민주당의 친명불패, 이 프레임 속에서 모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후보 누가 살아남았다. 비명 후보 누가 칼바람을 맞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치는 권위에 줄 세우게 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살아남는 게 최우선인 생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가치를 해결해가는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혁해야 선진국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 도전자의 시선에서 한 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2. 정치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서 합리적 가치관으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꿈꾸는 정치 도전자들이 정치의 세계로 첫발을 디딜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정치 참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정치는 지저분한 곳이야.", "정치판에 들어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보겠다고 그러느냐",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인들로 가득한 곳에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하느냐"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들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치 도전자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 도전자들이 처음 듣게 되는 위와 같은 반응은 우리 사회가 정치의 본질적 가치를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가 운영의 중심이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무용하다는 생각을 넘어 정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 저평가 인식은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 참여를 축소시키고, 개혁을 위한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정치 참여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 도전자가 두 번째로 듣게 되는 목소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가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본인 자리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권력 지향적이네.", "정치적 목적 숨기고 활동하느라 힘들었겠어"와 같은 반응들은 우리 사회가 정치를 향한 순수한 의지와 목적을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야지만 정치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비틀어 바라봅니다. 공적인 가치보다는 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정치 도전자의 가치와 포부는 무시되고 정치적 목적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들의 모든 행동과 관계가 향후 정치적 이득을 위한 계산된 포섭의 단계로 간주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직장과 커뮤니티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은 추구하는 가치와 동기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인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치를 바꾸고자 자신의 역량을 걸고 활동하는 도전자들이 세 번째로 듣게 되는 말은 '역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입니다. "줄 잘 서서 자리 하나 받는 게 최고의 능력 아니야?", "정치인 되고 공부하는 사람 못 봤어.", "엑셀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거들먹거리기나 하잖아"와 같은 반응은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량을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고도의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안을 다룰 수 있는 입법 능력, 예산을 볼 수 있는 분석 능력,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조정 능력,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 능력과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 능력까지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수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역량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인의 역량은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식은 정치 도전자들로 하여금 한번 정치의 길로 들어서면 본래의 전문 분야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치권에서의 활동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력 단절의 시간이 됩니다. 오히려 본인의 역량에 대한 저평가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정치로의 도전을 선택한 이후 경제적 안정성과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합니다. 정치 도전자들로 하여금 정치권 내에서만 생존해야 하는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 성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소소한 이익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원래 가치와 비전을 상실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가 가진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정치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 활동하게끔 해야 합니다. 정치 무용과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정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 합리적인 시선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해야만 정치가 변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참여를 권력 지향과 사적 이익 추구로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정치 참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합리적인 시선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치 도전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경력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나의 존중받는 경력 경로로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위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풍요로운 영역으로 정치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든 시민과 정치 도전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3. 생존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정치인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공천받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자리를 잡든, 전략 공천을 통해 지역으로 들어가든, 비례 순번 확보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와 당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장제원, 주호영, 유승민,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이철규의 새누리 탈당파 7명, 이해찬, 홍의락의 더민주 탈당파 2명, 윤종오, 김종훈의 구 민노계/통진당계 2명으로 총 11명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윤상현,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의 미래통합당 탈당파 4인과 이용호 국민의당 탈당파 1인 총 5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마저도 거대 정당에서 활동한 기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예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치 도전자의 입장에서 공천의 길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든 어느 한 곳의 지역구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 도전자의 입장에서 먼저 그 지역에서 도전 가능 여부부터 불확실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접수하여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자신을 알려도 그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버리면 그 도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총선을 준비하며 몇 년간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2024년 총선을 맞아 당무 감사 결과와 당 기여도 등을 반영해 현역 의원들을 심사하여 하위 10%를 컷오프시키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은 오히려 '중진 재배치'를 통해 현역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였습니다. 각 의원이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왜 다른 지역에 공천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출마 도전장을 내며 지역에서 활동 중이었던 수많은 정치 도전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좌절한 도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전략 공천을 통해 지역으로 들어가하고자 하는 길도 불확실한 길입니다. 전략 공천은 항상 급하게 결정되지만 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전략 공천되는지 논의 구조를 정치 도전자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누구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만을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전략공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에 연고가 없는 중진급 정치인들을 후보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들 여론조사의 핵심은 이 지역구에 누구를 넣어야 이길 수 있는지였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당내 거물급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정치에 도전하지만 인지도는 아직 없는 정치 도전자에게 전략 공천은 불확실을 넘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승리와 생존만 중요시되는 공천 현장에서 가치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 비례 대표 후보로 선정되며 그 순번은 어떤 이유로 선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각 당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생각과 비전, 가치와 역량을 단 몇 줄로 정리해 지원하는 일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4년 3월 18일을 기점으로 주요 정당의 비례 대표 후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참여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순번을 결정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의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순번이 정해져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천 논란과 부적격 후보 선정 문제가 불거졌으며 아울러 당을 위해 헌신한 당직자들이 포함되지 않음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 지역 비례 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까지 시행하였지만 순번에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후순위인 13번과 22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사천과 밀실 공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정치 도전자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할지 몰라 결국 도전을 접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름의 결심으로 도전했지만 그 모든 결심과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정치적 가치와 비전, 전문성,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치와 비전, 역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치와 비전, 역량이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를 인정하고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공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공존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14명의 당내 청년 인재들이 신청하여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2월 26일 청년전략지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가 나왔지만 모집 요강에서 선정 기준에 관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 후 심사에 의해 14명의 지원자 중 5명의 후보자가 1차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월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80일간 지역을 다져오던, 지역 내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였던 후보는 컷오프되었습니다. 5명의 후보자가 1차 선정되어 ‘공개오디션’을 벌였지만 한 사람당 고작 10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결선에 진출할 3명의 후보가 최종 발표되었지만, 이마저도 다음날 한 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도전이 나올까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어떤 가치와 비전이 제시될까요?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하고 캄캄한 공천의 길 앞에서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각자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비전과 가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걷고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 도전자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생존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정치개혁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싱어게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격려해주는 응원이 있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뒤통까지 해내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생존을 두고 경쟁하지만 누구나 잘 될 수 있는 공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면 불확실해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 그렇게 쉽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 하나 받아내는 거 아냐?”, “그럴 역량이 안돼” 사람들의 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생존과 전통의 가치관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을 보면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단체 참여 비율 중 정당에 참여하는 비율이 2.1% 최하위였습니다. 이마저도 2021년의 8.0%에 비해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치에 실망하여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의 현실 위에 바라본다면 불확실해 보입니다.

사회단체 참여 정도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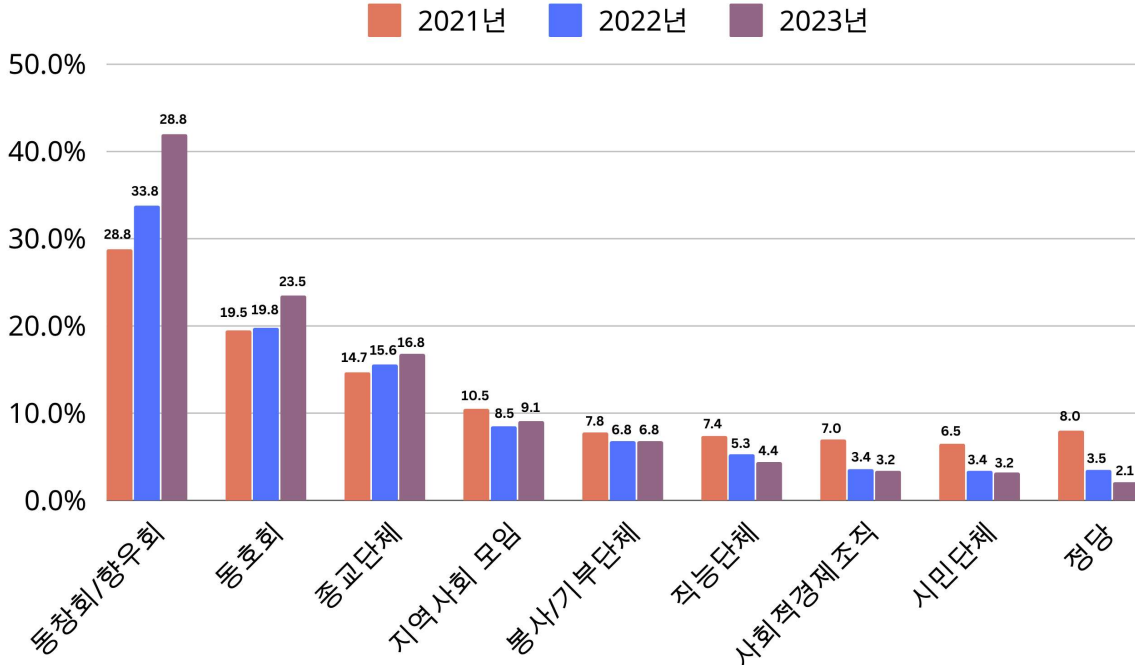



그림 6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49P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정치도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번 4·10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전통적 가치관에서 합리적 가치관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생존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전환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행하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정치 도전자가 있다면 SNS를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응원하고 알리고 팀이 되어주면 됩니다. 본인이 좋은 정치 도전자로 나서고 싶다면 가치를 나누고 역량을 준비하면 됩니다. 함께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동료가 함께할 것입니다. 4·10 총선이 끝나면 각 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참여해보면 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3,875명의 지방의원을 뽑을 수 있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내후년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정치 도전자를 공존의 길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정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말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참여한다면, 함께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정치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 다 평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자료집은 기원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